우란분절 백중영가 천도재



부처님의 십대 제자 가운데 신통력이 출중했던 목련존자의 모친은 이승에서의 삶이 덕스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통력이 뛰어난 목련존자가 모친의 사후 세계가 궁금하여 관법으로 살펴보니, 어머니는 지옥에서 고통스러움을 호소하며 아들인 목련존자에게 자신을 지옥으로부터 구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목련존자는 이런 상황을 부처님께 여쭈니 부처님께서는 하안거 해제일인 칠월 보름날에 대중에게 공양을 베풀고 일심으로 모친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것을 권합니다. 마침내 대중들의 일심 축원으로 목련존자의 모친은 지옥의 고통에서 해방됩니다. 이날이 바로 음력 7월 15일, 우란분절 또는 백중이라고 합니다. 법주사에서는 7번의 정성스러운 재를 올리면서 조상 천도를 위한 백중 49일 특별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백중천도재 봉행일정

- 입재 : 6월 25일 (음력 5월 27일) 토요일 법주사 대웅보전
- 초재 : 7월 1일 (음력 6월 3일) 금요일 법주사 대웅보전
- 2재 : 7월 8일 (음력 6월 10일) 금요일 법주사 대웅보전
- 3재 : 7월 15일 (음력 6월 17일) 금요일 법주사 대웅보전
- 4재 : 7월 22일 (음력 6월 24일) 금요일 법주사 대웅보전
- 5재 : 7월 29일 (음력 7월 1일) 금요일 법주사 대웅보전
- 6재 : 8월 5일 (음력 7월 8일) 금요일 법주사 대웅보전
- 회향 : 8월 12일 (음력 7월 15일) 금요일 법주사 대웅보전

■ **동참금** : 영가 1위당 20,000원 기도비 30,000원 (49일동안 영가등 밝혀드립니다)

■ **동참계좌** : 농협 403020-51-010482 법주사

■ **문의 및 접수** : 법주사 원주실 (043)543-4755

유네스코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法住會報

www.beopjusa.org 2022|5

부처님 말씀 오늘보다 나은 내일 / **이달의 법문** 壬寅年 夏安居 結制 法語 / **주지스님 법문** 걱정거리 / **걸망메고** 삶의 업보 / **수행여화** 순간 순간 사랑하고 행복하세요 / **감로의 글** 시 한 편과 바꾼 목숨 / **법주사 소식** / **다도회 합창단원 모집** / **법주사 행사일정** / **하안거 백일기도** / **법주사 광명진언 기도** / **신묘장구대다라니 독송기도** / **우란분절 백중영가천도재**



오늘보다 나은 내일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자신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뜻을 따라간다.
사람들이 마음 속에 품고 있는 뜻은 오직 한 가지다.
오늘보다 더욱 나은 내일이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 바람은 땀 흘려 노력하는 자만이 얻게 된다.
그래서 먼저 참는 것이 제일이고,
뜻을 이루고자 할 때는
먼저 욕심을 절제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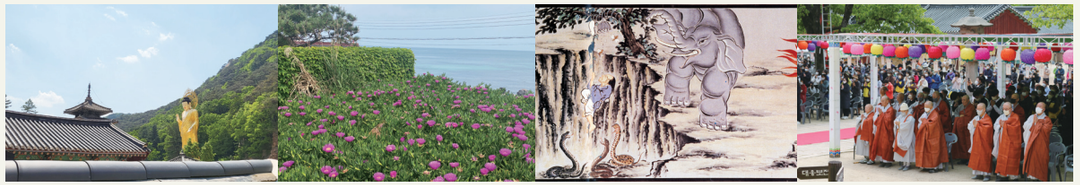
〈별역잡아함경〉



유네스코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法住會報

2022 6 | 통권 365호



2 부처님 말씀 오늘보다 나은 내일
4 이달의 법문 壬寅年 夏安居 結制 法語 법주사 조실 월서 대종사
10 주지스님 법문 걱정거리 정도 스님
12 걸망메고 삶의 업보 진정 스님
14 수행여화 순간 순간 사랑하고 행복하세요 현진 스님
17 감로의 글 시 한 편과 바꾼 목숨 두진 스님
20 법주사 소식
21 다도회 · 합창단원 모집 / 법주사 행사일정
22 하안거 백일기도
23 법주사 광명진언기도 / 신묘장구대다라니 독송기도
24 우란분절 백중영가천도

월간 법주회보 불기 2566(단기4355)년 5월호 통권 365호 / 1989년 9월 7일 등록 (등록번호 충북 라 01005) /제3종 우편물(나)급 인가 / 발행인 · 정도 / 주간 · 현진 / 편집장 · 무경 / 편집위원 · 김경래 / 전화 (043)543-3615 / 팩스 (043)543-3620 / 발행처 · 법주사

壬寅年 夏安居 結制 法語

월서 대종사 법주사 조실



오늘은 壬寅年 夏安居 結制 날입니다.
結制란 오늘부터 3개월이란 기간을 설정하여 그 정해진 기간 안에 수행, 정진해야 할 과업은
진실로 막중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生死윤회의 고통을 벗어나고 三界를 超出하여 大自在, 大解脫, 大涅槃을 얻게 되는 것이며,
正覺을 이루어 영원의 대 생명을 향유할 수 있는 커다란 작업을 성취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작업을 오늘부터 석 달 동안에 기어이 완수해야겠다는 굳은 결심과 비상한 각오와
엄청난 용기가 없이는 진실로 오늘을 맞이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해 곧 성불의 준비 작업이 시작되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커다란 모험이 아닐 수 없고 너무나 도에 넘는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마는
옛 조사와 부처님들이 모두 이러한 과정을 거쳐 생사윤회의 고통을 벗어난 것이 확실한 이상 우리라고
해서 안 될 까닭이 있겠습니까? 오직 여기에는 大憤心, 大信心, 大怖苦, 大勇猛, 大精進 만이 있을 뿐입니다.
저의 은사이신 金자 烏자 큰스님께서는 늘 말씀하시기를 醫定이 맺혀야 한다고 하셨고,
疑團이 獨露해서 惺惺寂寂한 話頭一念이 돼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話頭가 순수 무잡해서 더 이상 疑心이 클 수가 없고 더 이상 간절할 수가 없어 타성 일 편이 되면
疑團이 타파가 되어서 바로 자기 본래면목을 보게 될 것이다.

生死於是 是無生死　疑着話頭 如咬生鐵
생사가 이것인데 이것이 생사 없는 소식 화두를 의심해지을 때는 생철을 씹는 것 같이하라.

우리가 修行精進에 가장 큰 험로가 된 것은 煩惱妄想 흔침 산람심 온갖 잡다한 생각을 극복하기 어렵지만,
초심자는 자세를 똑바로 가부좌 혹은 반가부좌를 하고 이를 꽉 물고 혓바닥을 말아 입천장에 붙이고
호흡을 단전에다 힘을 주고 시선을 바로 하고 용맹스럽게 話頭를 들고 간다면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결제 중에 세 가지를 적게 한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적게 먹고, 적게 자고, 적게 말하고
조주스님 아직 납자시절에 남전화상에게 정말로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물어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바르게 사는 것입니까?”
그러자 남전화상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평상의 마음대로 살면 된다.”
즉, 平常心是道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주는 그 뜻을 쉽게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 도는 향하는 바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란 그대로 가 도다. 향한 바가 있어서 생각을 낸다면 곧 잘못된 것이다."
"생각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도를 알 수 있습니까?"
"도란 아는 것에도 속하지 않고 모르는 것에도 속하지 않는다.
안다는 것은 잘못 아는 妄覺이요, 모른다는 것은 멍청한 無記이다.
만일 참으로 의심이 없는 도에 도달할 것 같으면 허공과 같이 활달하여
넓고 넓어서 옳다 그르다 시비가 사라질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조주는 言下에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평상심이란?
있는 그대로의 마음이지만 그것은 망상이나 분별심 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망상이나 분별심은 평상심에 파문을 일으키는 중생심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평상심을 잊고 삽니다.
망상이나 분별심까지 평상심으로 생각한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멋대로 행동하면 道와는 거리가 멀어지고 평상심이라는 거리가 먼 방종에
빠지게 됩니다. 일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면 언제나 좋은 호시절의 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맑게 갠 허공처럼 본래 청정한 심경이 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경지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항상 좋은 시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도를 구한다는 것은 엄정한 것입니다. 말이 쉽다고 평상심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사가 곧 도인 것은 틀림없지만 분별심을 버리지 못한 중행은 도 근처에도 가지 못합니다.
왜 평상심의 도를 성취하기 어려운지? 대주 혜해선사께 어떤 율사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스님은 도를 닦을 공력을 들이십니까?"
"그렇지"
"어떻게 공력을 들이십니까?"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잠자지"
"그거야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나와 다르네."
"어떻게 다른지요?"
"나는 다만 밥 먹을 때 밥만 먹고 잠잘 때 잠만 잔다네,
그러나 다른 사람은 밥 먹을 때 욕심 먹고 잠잘 때 꿈속에서까지 온갖 생각을 일으킨다네"
우리가 평상시에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옳고 그르다는 분별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느 쪽으로 향한다는 것은 시비나 선악의 분별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시비나 선악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옳다고 해도 상대가 그르다고 한다면 시비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雲開萬里同看月　花發千山共得春
구름이 열리니 만리가 같이 달을 보고 꽃이 피니 온 산이 봄을 얻었네.

青山綠水吾家境　明月淸風孰主張
푸른 산 푸른 물은 우리 집 지경이나 밝은 달 맑은 바람은 누가 주장하는가

公道磊行端正士　名利不求養性眞
바른 도 깨끗한 행실 단정한 선비는 명리를 구하지 않고 참된 성품을 기른다.

公心似石終難轉　我道如環信所隨
공의 마음은 돌과 같아서 구르기가 어렵고 나의 도는 고리와 같아서 믿으면 따라간다.

道通天地有形外　思入風雲變態中
도는 천지 형상이 있는 밖에까지 통하고 생각은 바람 구름 변하는 속까지 들어간다.

萬里春光誰送去　一樓明月不招來
만 리 봄빛이 누가 보내서 가고 한 누각 밝은 달은 부르지 않아도 온다.

百川逝意來頭海　萬樹春心畢竟花
일백 내가 가는 듯은 오는 머리가 바다요 일만 나무 봄 마음은 필경 꽃을 피려 한다.

石老千年如古佛　山圍萬里卽長城
돌 늙은이 천년이 되니 부처와 같고 산 둘레가 만리나 되니 곧 긴 성일세

眼波不起忘千想　性址歸來了萬煩
눈물결이 일어나지 않으니 모든 생각을 잊어버리고
성품의 본 터로 돌아오니 만 가지 번뇌가 그친다.

萬里風來山不動　千年水積海無量
만리 바람이 불어와도 산은 움직이지 않고 천년이 쌓인 바닷물은 헤아릴 수 없구나

若人修道道不行　若人修道道不行
도란 닦으려면 도리어 닦아지지 않나니 온갖 삿된 소견만 다투어 일어날 뿐

智劍出來無一物　明頭未現暗頭明
지혜의 칼 휘둘러 한 물건도 없으면 밝음이 오기 전에 어둠이 밝아지리라.

髮白非心白　古人曾漏洩
今聞一聲鷄　丈夫能事畢
머리 세어도 마음 안 센다. 옛사람 벌써 말하잖았나.
닭 소리 한번 이제 듣고서 대장부 큰일 다 마쳤네.

서산대사는 닭 우는 소리를 듣고 깨치고, 어떤 스님은 대빗자루로 마당 쓸다 돌 부딪친 소리로 깨치고,
봉숭아꽃 활짝 핀 것을 보고 깨치고, 발을 쳐 놓은 것이 바람에 부딪힌 소리에 깨치고,
시장터 장사꾼 다투는 소리에 깨치고, 죽비소리, 종소리 등에 의지해서 깨쳤다고 하는데
몇 생을 두고 수행해 온 잠재력에 의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언제, 어느 때 깨달음이 올지 모릅니다. 이 기회를 놓치기 말기 바랍니다.
安居修行中에 가장 甚深難解하고 一大험로 된 것은 煩惱妄想客塵인대 三細六塵이
수겁다생에 八識에 業種子가 저장이 돼서 끊임없이 일어나요?
客塵煩惱란 객이고 먼지일 뿐입니다.
이번 하안거에는 아뢰야식에 억겁토록 저장된 업종자를 惺惺寂寂한 話頭一念으로 쓰러내야 합니다.
요즘 나온 진공청소기 역할이 되듯이 火焰光中에 白蓮이 綻開될 것입니다.
종무직을 맡은 스님들은 禪院外護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주지스님 법문

걱정거리

정도 스님 법주사 주지

세상에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란 없습니다.
모든 존재는 스스로 또는 혼자서 살아가고
존재 할 수 없기 때문에 매 순간 긴장하고
걱정하고 안심하고 안도하고 다시 긴장하는
순간들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인생일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고 갈망하고 바라는 마음의 평화와 안락한 삶은
걱정하는 것으로는 해결하거나 이룰 수 없습니다.

걱정한다고 상황이나 세상이 바뀌지도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근심과 걱정은 일을 꼬이고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바라는대로 바꿀 수 없는 상황을 기대하거나
바라기 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자신이 처한 만큼 최선을 다하는 것
거기에 만족하고 숨 쉬고 웃고 울고
매 순간의 자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삶의 업보

진정 스님 법주사 포교국장

우리의 인생을 비유한 것으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가르침이다. 인생은 결코 나 혼자만의 고립된 영역이 아니다. 나는 무수한 중생의 노고와 희생에 힘입어서 나의 삶을 영위해 가는 것이다.

한 나그네가 끝없는 들판 길을 가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사나운 코끼리 한 마리가
달려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죽을힘을 다해서 도망치던 나그네는
다행히 한 우물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마침 한 줄기의 넝쿨이 우물 속으로 뻗어 있었다.
어쩔 줄을 모르던 그는 급히 나무 넝쿨을 타고
우물 속으로 내려갔다.
그러나 우물 안은 잠시나마 편히 쉴 곳이 못 되었다.
위쪽으로는 검은 쥐와 흰 쥐 두 마리가 넝쿨을
갉아 먹고 있었고, 우물 안 벽에는 네 마리의 독사가
혓바닥을 날름거리고 있으며, 또 아래쪽으로는
무서운 독룡이 나그네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며
입을 쩍 벌리고 있는 것이었다.
놀란 나그네는 밖으로 나가려고 위를 쳐다보았다.
그러나 들불이 일어나 연기가 자욱하여 나갈 수가
없었다. 바로 그때 머리 위에 있는 벌집에서
꿀이 떨어져 그의 입에 들어갔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나그네는 달콤한 맛에 취하여
그동안의 위험과 괴로움을 잊고
꿀이 떨어지는 쪽을 쳐다보았다.
이 이야기는 비유경譬喩經에 나오는
'안수정등'岸樹井藤의 이야기이다.
사찰의 벽화에도 자주 볼 수 있다.
우리의 인생을 비유한 것으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가르침이다.
여기에서 나그네는 인생이며,
끝없는 들판은 무명의 긴밤(無明長夜)을
코끼리는 무상(無常)을, 우물은 생사,
넝쿨은 생명줄을,
검은 쥐 흰 쥐 두 마리는 낮과 밤을,
네 마리 독사는 우리 몸의 구성요소인
사대(四大; 흙, 물, 불, 바람)를,
꿀은 오욕(五慾; 재물, 애욕, 음식, 명예, 수면),
벌은 삿된 생각, 들불은 늙고 병듦,
독룡은 죽음을 각각 비유한 것이다.
인생을 불교적으로 해석하면 업보業報의



연속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업이란 단순히 운명에 순응하거나
팔자소관이라거나 하는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전혀 잘못된 견해다.
불교에서는 업이란 과거 · 현재 · 미래를 통하여
'짓는 행위'를 뜻한다.
과거의 업보도 현재의 행위와 노력여하에 따라서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전생의 행위는 금생의 나를 만들었지만,
나의 행위에 따라 미래는 결정되는 것
(欲知前生事 今生受者是 欲知來生事 今生作者是)"
이라고 말씀하셨다.
인생에 네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사람으로 나기 어렵고, 남자로 나기 어려우며,
불법(佛法)을 만나기 어렵고,
깨달음을 얻기 어렵다는 것이다.
초대하지 않았어도 인생은 저세상으로부터
찾아왔고, 허락하지 않았어도 이 세상으로부터
떠나갔다. 그는 찾아온 것과 마찬가지로
떠나가는 것이다. 거기에 어떠한 탄식이
있을 수 있는가! –자타카 말씀–

인생은 결코 나 혼자만의 고립된 영역이 아니다.
나는 무수한 중생의 노고와 희생에 힘입어서
나의 삶을 영위해 가는 것이다.
상의상관相依相關의 연기緣起 속에서
나의 생이 이루어짐을 자각하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일체중생에게
회향하는 보살의 길을 가야 할 것이다.

순간 순간 사랑하고 행복하세요

현진 스님 청주 마야사 주지



지금 나는 제주에 와 있다.
큰 변고가 없다면 여기서 한 달 동안 지내다 갈
예정이다. 아주 오랫만에 홀로 시간을 보내며
제주의 풍경을 즐기고 있다.
어제는 해변산책길을 걷다가 노을지는 바다를
감상하다 돌아왔고, 오늘은 숙소와 가까운
동네길을 따라 느릿느릿 걸었다.
이번 여행을 계획하면서 몇가지 원칙을 정했다.
첫째는 명소 가지 않기,
둘째는 맛집 검색하지 않기,
셋째는 승용차 이용하지 않기 등이다.
나는 이곳에 어떤 관광이나 탐사를 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천천히 걸으며
나에게 휴식을 선물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하루의 일정이나 목적지가 따로 없다.
주변을 느리게 둘러보다가 나무그늘에 쉬기도 하고
아담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 되는 것이다.
어제는 동네 한식당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점심을 해결했다. 어느집에서,
어떤 메뉴를 먹을까를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평소의 약속된 업무나 예정된 일상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휴식이 된다는 것을 배워가고 있는 중이다.
돌이켜보면 마야사를 창건하고 전법활동을 하며
도량을 아름답게 가꾸어 온지도
어느새 십년의 세월이다.
지난달에 '10주년 기념법회'를 마치면서
그동안 수고하며 정진해온 나 자신에게
쉼표를 주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내 인생에 대한 격려와 성찰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출가할 때의 그 기분처럼
걸망에 의지하여 홀로 길을 떠나자는 결심을 했다.
여기 오기 전날까지 텃밭에 물을 주고,
밭둑에 풀액을 치고, 정원의 잡초를 뽑았다.
일상의 일이란 자라나는 수염과 같아서
늘 현재진행형일뿐 끝이 없는 법이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중단할 수 있어야
마무리가 되는 것이다.
이 일 저 일에 구속되어 머뭇머뭇 지내다보면
언제나 그 기회를 놓치게 된다.
결국 인생의 휴식은 감행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시간일지 모른다. 그러므로 어느 순간 쉼표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한다. 언제 또 이런 기회가
나에게 주어질지 모르지만 그때는 지금과는
다른 의미이며 시간일 것이다.
모든 것이 일기일회一期一會.
인생에서는 똑같은 기회가 여러번 오지 않는다.
설령 동일한 기회가 왔다하더라도
그 시점이 아니므로 결코 같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의 내 선택을 존중하며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보내려 한다.
제주의 골목길을 걸으면서 마을마다 당산나무처럼
팽나무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육지에는 느티나무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바람이 많이 불어오는 이곳에서는 팽나무가
세월을 쌓으며 마을을 지켜주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멀구슬나무에 보라색 꽃이 피어서
발걸음을 가볍게 해준다.
제주를 수차례 방문하였어도 멀구슬 꽃을
자세히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러므로 천천히 걸으며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는
표현을 했나보다. 여긴 벌써 집집마다
분홍 낮달맞이꽃이 한창 피어있다.
어느집 앞을 지나다가 담장에 무리지어
피어있는 시계꽃을 보았다.
우리절에도 심었으나 겨울을 견디지 못하고
시들어버렸던 그 꽃을 이곳에서 만나게 되어
반가운 마음에 한참을 서 있었다.
개인의 취미는 어쩔 수 없는 것인가 보다.
제주도에 왔어도 내 눈엔 꽃과 나무만 자꾸 보인다.
작은 정원이라도 있는 집 앞은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무슨 꽃을 심고 피웠는지
살펴보게 된다.





꽃을 사랑하는 마음과 정서는 지역이나 계층과
상관없이 똑같다는 생각을 해 본다.
우리민족만큼 꽃씨를 나누며,
꽃을 가꾸는 강인한 민족이 또 어디 있으랴.
자기 식의 정원을 만들고 자기 취향의 식물을
심으며 풍진 세상을 위로받으며 살아왔을 것이다.
아침에는 애월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앉아
음악을 들으며 한참을 보냈다.
몇시까지 어딜 가야 한다는 계획이 없으니
서두를 것도 없다. 얼굴을 스치는 바람을
도반삼아 쉴 뿐이다. 침묵 속에서 나 자신과 대화를
나누며 심심한 시간을 무료하게 즐기는 셈이다.
순간 순간의 시간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며
충전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깨어있는 휴식'이다 할 것이다.
인생도 하루하루의 삶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스스로 충만할 수 있다.
출세와 성공이 목적이 되면 자잘한 기쁨을
놓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행복의 수치는
자잘한 기쁨이 모인 평균값이다.
따라서 숨쉬고 있는 지금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현재가 더 빛날 수 있다.
우리절 입구에
"순간순간 사랑하고 순간순간 행복하세요.
그 순간이 모여 당신의 인생이 됩니다."라고
적어 놓았다.
나는 이곳 제주에서 순간순간을 사랑하고
순간순간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할 것이다.

시 한 편과 바꾼 목숨

두진 스님 법주사 교무국장

한 수행자가 히말라야에서 홀로 고생하면서 오랜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그때는 아직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오시기 전이었으므로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했다는 말도,
대승경전大乘經典이 있다는 말도 듣지 못했다.
그때 제석천帝釋天은 그가 과연 부처를 이룰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이 있는가를
시험하기 위해 나찰(羅刹)의 몸으로 변해 히말라야로 내려왔다.
수행자가 사는 근처에 서서 과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시의 앞 구절을 외웠다.

"이 세상 모든 일은 덧없으니 그것은 곧 나고 죽는 법이네."

그는 이 시를 듣고 마음속으로 무한한 기쁨을 느꼈다.
자리에서 일어나 사방을 둘러보았으나 험상궂게 생긴 나찰 이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생각하였다. '저처럼 추악하고 무서운 얼굴을 가진 것이 어떻게 그런 시를
읊을 수 있을까?
그것은 불 속에서 연꽃이 피고 햇볕 속에서 찬물이 흘러나오는 것과 같다.
그러나 또 알 수 없다. 혹 저것이 과거에 부처님을 뵙고 그 시를 들었을는지도.'

그는 나찰에게 가서 물었다.
"당신은 어디서 과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시의 앞 구절을 들었습니까?
당신은 어디서 그 여의주의 반쪽을 얻었습니까?
나는 그것을 듣고 마치 망울진 연꽃이 피는 것처럼 내 마음이 열렸습니다."
"나는 그런 것은 모르오. 여러 날 굶어 허기가 져서 헛소리했을 뿐이오."

"그런 말씀 마십시오.
당신이 만일 그 시 전부를 내게 일러 주신다면 나는 일생토록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물질의 보시는 없어질 때가 있지마는 법의 보시는 없어질 수 없습니다."
"당신은 지혜는 있어도 자비심이 없소. 자기 욕심만 채우려 하고 남의 사정은 모르고 있소.
나는 지금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오."
"당신은 대체 어떤 음식을 먹습니까?"
"놀라지 마시오. 내가 먹는 것은 사람의 살덩이이고 마시는 것은 사람의 따뜻한 피요.
그러나 그것을 구하지 못해 나는 괴로워하고 있소."
"그러면 당신은 그 나머지 반을 들려주십시오.
나는 그것을 다 듣고 내 몸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 무상한 몸을 버려 영원한 몸과 바꾸려 합니다."
"그러나 누가 당신 말을 믿겠소? 겨우 반쪽을 듣기 위해 그 소중한 몸을 버리겠다니."
"당신은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질그릇을 주고 칠보로 된 그릇을 얻듯이,
나도 이 무상한 몸을 버려 금강석처럼 굳센 몸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는 많은 증인이 있습니다.
시방 삼세의 모든 부처님께서 그것을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똑똑히 들으시오. 나머지 반을 말하겠소."

그리고 나찰은 시의 후반을 외웠다.

"나고 죽음이 다 없어진 뒤 열반 그것은 즐거움이어라."

그는 이 시를 듣고 더욱 환희심이 솟았다.
시의 뜻을 깊이 생각하고 음미한 뒤에 벼랑과 나무와 돌에 새겼다.
그리고 높은 나무 위에 올라가 떨어지려 하였다. 그때 나무의 신[樹神]이 그에게 물었다.

"그 시에는 어떤 공덕이 있습니까?"
"이 시는 과거 모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 시를 들으려고 몸을 버리는 것은
나 하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최후로 이런 생각을 하였다. '세상의 인색한 모든 사람에게 내 몸을 버리는
이 광경을 보여 주고 싶다. 조그만 보시로 마음이 교만해진 사람들에게
내가 한 구절의 시를 얻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버리는 것을 보여 주고 싶다.'
그는 몸을 날려 나무에서 떨어졌다. 그런데 그 몸이 땅에 닿기도 전에 나찰은
곧 제석천의 모양을 나타내어 공중에서 그를 받아 땅에 내려놓았다.
모든 천신이 그의 발에 예배하고 그 지극한 구도(求道)의 정신과 서원(誓願)을 찬탄하였다.
– 《대반열반경》에서



5월 1일 초하루기도



5월 8일 부처님오신날



5월 8일 천년의 향기 2차

법주사 솔향기 다도회 회원모집

법주사에서는 문화의 꽃이라 칭송되는
다도회의 회원을 모집합니다.
뜻있는 신도님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연락처 : 010-5498-5546 (회장)
010-7400-1388 (총무)

법주사 합창단원 모집

불심이 있고 불법홍포에 관심이 있으신 분
"함께해요"

연락처 : 010-5262-0871 (단장)
010-4019-2033 (총무)

2022. 6 법주사 행사일정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음 5.3 신중기도회향 지방선거일	2 4	3 5 단오	4 6 탄성대종사다례 광명진언기도 어린이법회
5 7	6 현충일 망종 8 약사재일 다도반법회	7 9 합창단법회	8 10	9 11	10 12	11 13 어린이법회
12 14	13 15 보름	14 16 미륵재일철야기도	15 17	16 18 지장재일 지장회법회	17 19	18 20 다라니독송기도 법주회 법회 어린이법회
19 21	20 22 다도반법회	21 23 하지	22 24 관음재일	23 25	24 26	25 27 백중입재 어린이법회
26 28	27 29	28 30	29 6.1 초하루 신중기도입재 보현회 법회	30 2		

■ **초 하 루 차량운행** : 청주지역 – 체육관 앞 오전 7시 30분, 8시 30분 / 대전지역 – 선샤인호텔 앞 오전 8시 10분
■ **미륵재일 차량운행** : 청주지역 – 체육관 앞 오후 3시 / 대전지역 – 선샤인호텔 앞 오후 2시 30분
■ **지장재일 차량운행** : 청주지역 – 체육관 앞 오전 8시

하안거 백일기도

하안거 백일기도는 100일 동안 외부와 단절하고 오직 깨달음을 위해
수행 정진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오직 수행과 기도로서
원력을 삼으시고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서원을 이루고자 정진하는 기간입니다.
물 맑고 공기 좋은 곳을 찾아 세속의 번잡함을 여의고
덕 높은 스님들의 수행과 기도의 원력을 받아서 소원성취 이루시길 발원 드립니다.

- **입　　재** : 불기 2566년 **5**월 **15**일(음 4월 15일) 일요일
- **회　　향** : 불기 2566년 **8**월 **12**일(음 7월 15일) 금요일
- **동 참 금** : **20**만원
- **동참계좌** : 농협 **403020 - 51 - 010482** (예금주 : 법주사)
- **문의 및 접수** : 원주실 (043)543-4755



법주사 광명진언 기도

법주사에서는 보물 1360호인 법주사 비로자나부처님전에 지극 정성으로
광명진언기도를 봉행하고자 합니다. 불자님들께서도 자기 자신과 주위를 모두 밝히고
맑힐 수 있는 광명진언기도에 동참하셔서 뜻 하시는바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 **일　시** : 2022년 **6**월 **4**일(음 5월 6일)
  토요일 **14:00~15:00**시 (매월 첫째주 토요일)
- **동참금** : **2**만원

신묘장구대다라니경 독송 기도

"모든 공덕을 다 갖추고 있다" 라는 다라니 중 "신비하고 미묘한 공덕을 갖춘
위대한 다라니인 신묘장구대다라니를 통해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도 얻고 건강과 행복도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일　시** : 2022년 **6**월 **18**일(음 5월 20일)
  토요일 **14:00~15:00**시 (매월 셋째주 토요일)
- **동참금** : **2**만원
- **장　소** : 법주사 대웅보전

